

# 520억 들여 200만평에 첨단한방단지 전통약초마을, 바이오단지등 조성

경북도는 최근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 자연휴양림 내 50만여평의 사유지를 '경북 한방자원산업화단지'로 지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비 190억원, 지방비 10억원, 민자 및 기타 자금 320억원 등 총 5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만평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한 뒤 2008년까지 35만평 규모의 전통약초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약초마을에는 약초재배단지, 농장, 체험시설단지, 약초생태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는 또 한약재의 효능과 약리작용을 연구하는 한방자원개발센터와 한방바이오벤처단지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약초목욕탕과 한약

토굴찜질방, 허브마사지실, 건강뜸·침술시술실, 한약식이요법실 등의 건립도 추진한다.

도는 이어 2009~2011년 자연순환 테마파크 조성, 헬스투어단지 및 환경친화적 실버타운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상주 인근에 있는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과 풍기 인삼시험장, 의성 약초시험장 등과 연계한 한방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한의학 중심 대학인 경산대와 공동으로 한방바이오테크산업을 적극 육성기로 했다.

이들은 대구에 한방식약청 신설하고 국제규모의 한방의료원과 노인병 치료센터, 한의학 박물관을 설립하며 약령시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들은 전통적으로 한약재 도매시장의 맥을 잇고 있는 대구와 우리나라 한약재의 주산지인 경북을 연계해 '세계적 한방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 문경 '오미자' 특화작목 육성

경북 문경시 동로면 오미자가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동로면 황장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천혜의 기상조건으로 고유의 맛과 향·색이 뚜렷하여 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1996년 휴경지를 이용해 소득개발사업으로 3ha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오미자는 2002년 현재 123가구에서 53ha를 재배하고 있다.

시농업기술센터의 관계자는 "올해 모두 110t을 생산, 6억5,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34농가에 15ha의 점적관수 시설을 보급하는 등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054-555-7328.

## 익산시, 한방과학산업 육성

### 신약개발 위한 한방약초연구소 건립 추진 계획

전북 익산시는 원광대와 한의사협회,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한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6일 '원광대 한의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고 행정과 지역 상공인들이 합심해 한방을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조만간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원광대 전통의학연구소, 시의회, 한의사협회, 상공회의소의 대표로 구성된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 추진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경북 울릉군이 울릉도에 자생하는 마가목 나무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울릉도와 지리산, 덕유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마가목 열매가 신경통과 방광염, 뇌졸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소문

게 무르익기 시작했다.

마가목은 새싹이 돋을 때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솟아나 마아목(馬牙木)으로 부른 데서 유래된 말로, 열매는 다다다닥 붙어 작은 포도송이처럼 앙증맞은데다 나무 자태가 빼어나 울릉군이 가로수 등

## "마가목 열매 따지 마세요"

### "열매를 따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 가세요"

이 퍼지자 결실기인 최근 섬 주민과 한약 재료상, 관광객들이 마가목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 나무를 베거나 가지를 꺾는 등 훼손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 마가목은 성인봉을 중심으로 한 산림지역과 등산로 및 섬 일주도로 도동~사동 도로변 3.4km에서 자라고 있는데 지난달 말부터 열매가 빨갛

으로 심으며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

울릉군은 이에 따라 자체 감시조를 편성, 나무보호에 나서며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하기로 했다.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마가목 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무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홍보물을 작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배포에 나섰다.

## 평창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전국 제일의 청정 고산지대인 강원도 평창지역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이 조성된다.

평창군은 올해 말까지 모두 1억원을 들여 진부면 상진부 3리와 호명리 등 2개소에 멸종위기의 토종 희귀약초류를 생산, 보존하고 관광 및 약용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약초체험장에는 희귀약초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50여종의 전시포와 함께 가시오갈피와 토종오갈피, 산마늘 등 목본류와 초본류 재배단지 1만4천여㎡가 조성된다.

또 가공시설과 약초 찜질방 시설 등을 갖추고 전시대와 판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 희귀약초의 전시 및 생산, 가공, 판매의 일원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군은 이와함께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가공품을 개발, 약초체험장을 관광명소로 제공할 방침이다.

## 전주 약령시 제전 이달 중순 개최

'정(情)과 건강(健康)'을 주제로 한 전주 약령시(藥令市) 제전이 다음달 중순 전주시 완산구 전동 경기전(조선 태조의 어진 봉안소)에서 열린다.

지난달 21일 전주약령시 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시대 전국에 명성을 날리던 전주 약령시의 전통을 되새기고 한방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2 전주약령시 제전'을 오는 10월 16~20일 열기로 했다.

이번 제전에서는 전통 한약방을 재현하고 전주약령시 고증자료와 약초 꽃 및 약초사진, 약초 씨앗, 국산, 수입약재, 한약술 등 다양한 전시행사가 펼쳐진다.

### 업체 소식

#### 신월식품, 황기 이용 기능성 전통된장 개발

약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제천지역의 전통식품 가공업체가 황기를 첨가한 된장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전통식품 가공업체인 신월식품은 2년에 걸친 연구끝에 지역에서 재배된 황기를 이용한 기능성 된장을 탄생 시켰다.

이 업체는 마을에 사는 3명이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으로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800만원을 지원받아 전통메주와 된장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황기된장은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100% 우리콩에 질 좋고 우수한 황기를 첨가한 전통장으로 1kg 7000원, 10kg 6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 동서메디텍, 초고속 한약전탕기 생산

대전에 있는 동서메디텍(대표 이기만)은 한약재를 자동으로 달여주는 초고속 전탕기(電湯機) '메디셋'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메디셋은 발열체를 마이콤 방식으로 자동 제어,탕기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동질의 약효를 지닌 한약재를 반복 추출할 수 있다. 또 가열판과 용기를 착탈식으로 분리시켜 약 끓는 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0~30분으로 단축시켰다.

동서메디텍은 착탈식 전열히터를 구비한 가열장치에 대해 특허출원했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셋은 장기복용 환자를 위한 제품과 일일환자를 위한 제품 두종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쓸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2백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기만 대표는 "메디셋 한대가 재래식 전탕기 5.6대 역할을 한다"며 "올 매출목표는 30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